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림교회 최초의 건물, The New Room 건축 280주년 기념, 스테인드글라스 부분

“이 때를 위함이라”(For such a time as this)

2021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교육프로그램

광림교회 성도들을 위한 대표적 성경공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과 교육프로그램들이 개강되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이번 트리니티 성경공부 주제는 “이 때를 위함이라”(에 4:14)이다. 과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으로부터 귀환과 성전 재건 내용의 <에스라>, 제2의 출애굽이라 불리는 포로 귀환 역사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신앙을 회복하고 재정착하는 <느헤미야>, 이방 땅에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성과 역사성, 신앙의 희망을 강조하는 <에스더>이다.

9월 7일~11월 30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진행된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일반/통신과정 구분 없이 오전 11시에 본당 강의만 진행되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림교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다.

<광림 4 Steps 평신도 지도자 교육>
가을학기 교육프로그램 중 신설된 광림교회 평신도 지도자(임원, 속장, 선교회장)교육은 1단계 Knowing Jesus → 2단계 Following Jesus → 3단계 Serving Jesus → 4단계 Living Jesus로 9월 5일~11월 28일까지 매주 일 오후 2~4시,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조별 나눔으로 진행된다.

1단계 Knowing Jesus ‘예수님의 사랑 알아가기’는 총 12개의 챕터, 7개의 큰 주제로 구성된다. 부르심(Calling), 사랑(Loving), 소망(Investing), 성장(Growing), 치유(Healing), 변화(Transforming), 보내심(Sending)이다. 강사는 김정석 담임목사, 정준수 기획목사, 조성환 목사, 오세우 목사, 권순정 목사, 박중섭 목사이다.

<유양겔리온 전도학교> 9.26~10.24 매주 일 오후 2시~4시, 나사렛성전에서 진행된다. 유제석 목사는 “유양겔리온은 ‘기쁜 소식

(Good News)’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유양겔리온 전도학교의 목표입니다. 전문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 전도자의 역할과 목표를 세우고, 전도훈련과 간증을 통해 전도의 당위성을 깨닫고, 그동안 궁금했던 문제들을 Q&A 시간을 통해 복음전도의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츄즈라이프> 9.12~11.21 매주 일 오전 9시~10시, 양의 문에서 진행된다. 박중섭 목사는 “이번 츄즈라이프는 ‘신약의 강’입니다. 특별히 4복음서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가며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예수님의 출생부터 공생애, 십자가 처형과 부활까지 내용을 각 복음서가 증언하는 바를 연구하며 복음의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바울서신

을 공부할 때는 역사와 지리를 따라가며 전체적으로 신약시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가 되도록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어번던트 라이프> 9.12~11.21 매주 일 오전 11시~12시, 양의 문에서 진행된다. 김요섭 목사는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쓰면서 가까이 하였지만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녹여내어 소화시키는 일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제 ‘말씀 묵상의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통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어번던트 라이프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고 열매 맺는 일을 돕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말씀 묵상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상희 기자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한복음 13장 1~20절)

자신의 죽음이 점점 다가옴을 아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니다. 이제 지상에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중대한 사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겼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죽음이 라는 극한의 상황을 앞에 두고서도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실 과거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그 의미를 말씀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는 본을 보이셨으니,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행할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17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참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여기지만 정작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힘들어 합니까? 사람이란 원래 ‘나’를 누구보다 아끼고 존중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본성과는 다르게 내가 아닌 타자 중심적 혹은 타자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가치가 충만하신 분이셨고, 그 사랑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향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이 ‘타자’를 향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충만한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이어지고 흘러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만 좇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인생이 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0절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겼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너희가 깨끗하니라 나는 아니니라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둘째,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다른 이들을 사랑하시며 겸손으로 섬기시는 예수님과는 반대의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기도 오�히려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계의 자세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며 이를 때, 거기서 기쁨과 성취감을 얻곤 합니다.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는 이 세

상 속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욕심의 무게만큼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거나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선생님이시며, 주님이라고 불리시는 그 분께서 제자들 발 앞에 꿇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발을 만지시고 씻기셨습니다.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

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가치있는 것을 위해 자신의 것을 과감히 포기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큰 마음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와 생명마저도 희생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고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씻어내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발을 씻어 주신 행위를 본뜨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더라도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섬김이셨고, 그렇기에 마지막 당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눅 22: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하여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김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이를 통해 참된 기쁨과 복을 얻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71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베풀다

사회사업위원회, 9월1일 사랑의 돌봄 행사 가져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배경호 권사)는 9월 1일 오전 5시30분부터 추석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돌봄 행사를 가졌다.

어르신을 위한 행사는 그동안 매주 수요일 새벽이면 행하여졌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매주 갖는 것이 쉽지 않아 매월 한차례 갖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격월로 첫째 주 수요일 하루만 사랑나눔 행사를 갖고 있다. 장소도 종전에는 장천홀 1층 로비에서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장천홀 입구에서 하고, 봉사자들은 전원 안전캡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어르신을 맞이 한다.

격월로 하다보니 자칫 날짜를 놓치기도 쉽지만 비가 간간히 내리는 이날도 평소와 비슷한 220명의 어르신들이 찾아왔으며, 이들

에게 사탕, 빵, দুয়ু, 한방가스 및 현금을 지급했다. 중복해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는데, 500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엔 처음 나온 사람도 40명이나 되었다.

배경호 권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교회나 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광림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이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항상 봉사하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고 하였다.

선물 중에 성경구절로 포장된 사탕은 김명진 권사가 후원하고 있으며, 추석을 맞이하

여 이날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안병철 권사가 본사직원 3명과 함께 봉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후원하였다. 안 권사는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을 앞에 두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정준수牧사는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을 베풀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섬김을 통해 많은 자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축복기도를 했다.

 이득섭 기자

포토 뉴스



광림장학금 수여식
9월 5일(주일) 저녁예배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개강
9월 7일(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개강했다.



광림 45steps 평신도 지도자 교육
9월 5일(주일)부터 1단계
Knowing Jesus가 진행 중이다.



여선교회총연합회 9월 월례회
9월 5일(주일)에 여선교회총연합회
9월 월례회가 있었다.

답임목사 동정



9/5 광림장학금 수여식

9/7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개강

남연회평신도자문기구 2차협약식

9/9 남연회 실행위원회

9/12 광림선한니눔운동 전달식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코로나19 극복 / 한가위 사랑 나눔 광림 선한 나눔 운동

“일상은 멈춰도, 나눔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지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수거기간

2021년 8월 29일(주일) ~ 9월 12일(주일)

장 소

광림교회 정문, 사회봉사관 2층
엘리베이터실 앞 및 주차장 입구

기부방법

- ▶ 교회를 방문하여 나눔 박스에 자유롭게 기부
- ▶ 현금을 통해 동참(감사헌금 봉투에 '광림 선한 나눔 운동' 기입)
- ▶ 대량 기부 시 목회선교지원실로 개별 연락 (02-2056-5733)

수거물품 : 생필품 및 식품

▶ 생필품 : 치약, 칫솔, 샴푸, 휴지, 마스크, 손소독제 등

▶ 식품 : 쌀, 즉석밥, 라면, 김, 통조림, 레토르트 및 인스턴트 등

▶ 비수거 물품 :

채소, 생선 등 상하기 쉬운 음식 X
포장이 잘 되어있지 않은 음식 X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내 인생의 말씀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여선교회총연합회에 들어온지 11년이 되었다. 에스더 연합회계, 에스더연합회장, 지금 현재 A루디아 선교부장을 감당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 여선교회총연합회 월례회가 진행될 때 개체회장님들은 줄을 서고 회비납부를 하면서 월례회가 시작된다.

회장님들을 만날 때 떠오르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편과 처지가 제각기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천사와 같은 회장님들과의 만남에서 큰 은혜를 받는다. 허리가 아프셔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 하시면서 사모하는 믿음으로 참석하시는 믿음의 천사, 회원 2명뿐인데 목표액을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하다보니 남편 권사님께서 진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 해주셨다는 간증의 천사, 가족과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후 월례회 참석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쁨의 천사, 손을 잡고 반겨줄 때 진심이 느껴졌다는 천사, 기쁨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며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축하해주며 11년 긴 시간 속에서 개체회장님들과 끈끈한 친교가 이루어졌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협력은 주님 원하시는 지상 명령인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 물질과 봉사 등 다양한 모양으로 부족함 없이 행해졌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아도 감동이며 박수를 보내고 칭찬이 절로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코로나19 라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켜놓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서너 명 끊이지 않고 선교회 모임을 해주시고 그 먼길 대중교통으로 월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시는 회장님을 보면 감동을 받을때가 많다. 특히 얼마 전엔 “권사님, 얼굴보고 손잡고 싶어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손잡는 권사님을 뵈었을 때 감사함과 동시에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안에 하나된 지체임을 느꼈다.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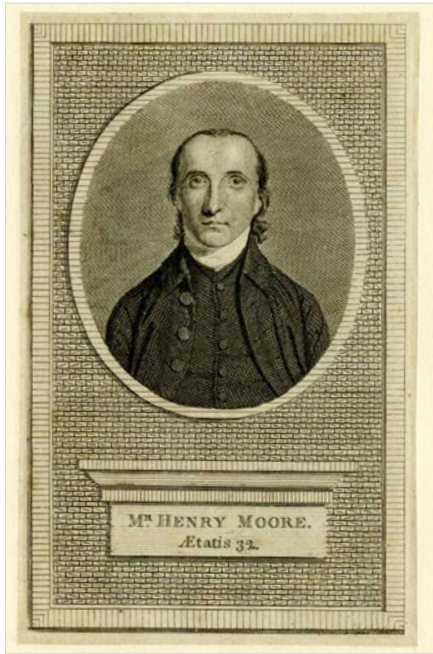


진정숙권사
(여선교회총연합회, A루디아선교부장)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 15

존 웨슬리의 전기 작가 <헨리 무어>



광림 헤리티지 & 비전 홀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 '존 웨슬리의 생애(The Life of the Rev.
John Wesley, A. M.)는 감리교회 운동의 초

기 지도자이자 존 웨슬리의 가장 친밀한 동역자인 헨리 무어가 쓴 책입니다.

헨리 무어(Rev. Henry Moore, 1751-1844)는 아일랜드 더블린 외곽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성직자가 되기 위해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한 조각가의 조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런던으로 상경하여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설교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감리교인이 되었습니다. 1779년 존 웨슬리는 그를 감리교회의 순회설교자로 파송했으며, 훗날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친구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1784년~1786년, 1788년~1790년에는 존 웨슬리의 선교여행 보조 동반자로 봉사했습니다.

무어는 글 쓰는 능력과 문학적 감각이 탁월했기에 존 웨슬리의 설교를 편집하고 출판하는 일, 성경과 신학에 대해 해석하고 설교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런던 시티로드의 웨슬리 채플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존 웨슬리의 속 이야기를 터놓는 친구(confidential

friend)'라고 적혀있습니다.

책은 두 권으로 되어 있으며, 1권에는 첫 장에 존 웨슬리의 63세 때의 모습이 삽화되어 있으며 총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웨슬리의 증조부와 조부,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소개, 존 웨슬리의 형인 사무엘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 웨슬리의 성장 과정과 조지아 선교, 회심과 감리교 운동, 수산나 웨슬리의 죽음까지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헨리 무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의 생애, 사상, 모든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다 터놓는 사이가 되었으며, 자신을 이어 감리교 운동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성장시켰습니다. 특별히 그는 문학적인 재능을 살려 감리교 운동에 대한 많은 저작물을 남겼으며, 1804년과 1823년에는 감리교 운동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변함없는 개체선교회 모임과 다양한 선교활동

여선교회총연합회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개체선교회의 선교회 모임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6, 7월 두 달간 선교회 모임 후 찍은 사진을 여선교회로 전송하면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결과는 기대이상으로 많은 사진을 보내주며 선교회 소식을 알렸다. 모아진 사진들로 제작한 동영상은 7, 9월 월례회 시간에 상영하여 선교회장과 회원들에게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선교회모임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올해 개체선교회헌금은 해남감리교회 성전건축을 위해 쓰여 진다. 해남감리교회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선교교회헌금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선교회는 해외선교회에도 많은 도움과 후원을 하고 있다. 지난여름 필리핀 지역의 홍수로 인해 까마철레교회, 테리야교

회동 8개의 교회와 교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를 돕기 위해 여선교회에서는 쌀 50kg 100가마를 전달해 어려운 해외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또한, 추석에 맞춰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여선교회 가을선교장터>가 열리고 있다. 사회봉사관3층 여선교회 사무실에서 참기름, 들기름, 부각, 젓갈, 다마리간장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별히 9월 12일(주일)과 14일(화)에는 마리아 선교회원들이 추석을 맞아 직접 만든 각종 전을 판매한다. 10월에는 탕과 김치 등의 간단한 음식도 판매할 예정이다. 이화열 권사(여선교회총연합회 회장)는 “여선교회총연합회는 광림교회의 역사와 함께 많은 선교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코로나시대는 당황스러웠지만 기도와 말씀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게 된 것이 이 시간에도 일하게 하

는 원동력이라 믿습니다. 또한 선배들이 물려준 선교사명에 대한 책임감과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신앙의 열정과 젊은 임원들의 신선한 패기와 창조적 의견들이 믿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존중함이 또 하나의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여선교회총연합회는 개체선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여선교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매주 주일과 월요일에 모여 임원기도회를 갖고 있다.

광림교회 여선교회가 추구해온 선교사역에는 변함이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와 일상이 멈춘 상황에서도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법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여선교회의 위대한 선교사역을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백명순 기자

2021년 광림 청년부 교육선교 - ②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된 ‘회복키트’



9월 1회차 기사를 통해 교육선교 지역별 팀장님들의 간중에 이어 이번에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청년부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이번 여름 전국 10개 지역, 100개 교회를 섬겼습니다. 비록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지만 지역교회 교회학교의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자라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안정화되어 내년에는 아이들을 만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름마다 광림 청년부가 지역교회 교회학교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부에서 섬긴 지역교회에서 보내온 감사 인사입니다
남양주 제자교회(배영호 목사): “매년 여름마다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제자교회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해가는데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해와 올해에도 변함없이 찾아

주시고 교회학교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양 노동교회(오세훈 목사): “보내주신 회복키트를 잘 받았습니다. 9월 18일에 노방전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전도할 때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드림교회(윤국현 목사): “멀리 대구지역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를 위해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해 헌신해주신 담임목사님과 성도님,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청도교회(정대근 목사): “너무나 큰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며,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대구 축복의 동산교회(정미란 전도사):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으로 잘 넣어주셔서 선물받은 아이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전도와 심방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가온감리교회(조성수 전도사): “모두 다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개척교회를 생각해주는 것은 광림교회의 사역이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교회의 선교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주안예교회(한승희 목사):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선물이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섬겨주신 광림 청년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사역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천안 새생명교회(최 청 목사): “코로나의 확산으로 비대면 기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광림교회 청년부 교육선교를 통해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교육선교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자라 중등부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이들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중고등부, 예배자로 세워지는 부흥의 세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광림교회 중고등부는 2021년 8월 29일 오전 10시 장천홀에서 ‘예배자 다윗’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다. 이번 중고등부 연합 여름수련회에는 학생 67명과 교사 59명 등 126명이 참여했다.
강영범 목사는 ‘예배자 다윗’(삼하 24:25)을 주제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친밀해져가는 은혜를 누리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예배의 자리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예배자가 되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자”라고 말씀을 전했다.
청년부 ‘비전찬양팀’의 찬양과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선포된 후 중고등부 학생과 선생님 모두 통성으로 첫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다윗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둘째,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자유롭게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이웃과 의료진 담당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소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제목으로 뜨거운 기도회가 이어졌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세워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정재혁 간사는 “바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가 회복되어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가 회복되어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중고등부 교사들은 2주 동안 여름수련회 교사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여 학생들과 예수님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각자의 가정과 학업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했다.
중고등부는 연합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이 땅의 다음세대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

신희경 기자

신앙 간증

주님께 의지하는 삶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선교국 2교구 속장 조예준 청년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내기 친구들을 섬기라고 불러주셔서 올해부터 기도로 속장의 자리를 맡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아, 속장의 자리도 ‘걱정이 된다’는 이유로 몇 차례 거절하곤 했습니다. ‘내가 못할까 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속원들이 나를 미워할까 봐...’ 속장이 되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보단 제가 걱정되는 이유들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때 주신 마음은 “예준아,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게”였습니다. 사실 많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믿고 속장으로 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새내기 속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장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중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속장이 되기 전, “속장이 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들곤 했습니다. 속장이 되기전,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속장이 된 지금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 속회에 대한 고민 등을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걱정도, 어려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해주셨고 저의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을 떠올리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불안하고 위태롭던 속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픈 은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기에 고민이 많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가까이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속장으로 서게 됐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엔 실수와 관계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속회를 하기에 앞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못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하려고 했다면 못했을 일을 하나님과 함께일 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예준 속장(청년부)

심방하러 갔다가 심방받고 옵니다

- 목회현장 -



정용식 목사 (4선교구)

광림교회 선교구 목사의 가장 큰 목회는 심방(尋訪)입니다. 성도님을 찾아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주신 기도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당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강단과 회중석이 아닌 마주보는 자리에서, 말씀에 대한 선포가 아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나누는 그 자리가 너무 귀합니다. 심방은 ‘찾아가서 만나 봄’이라는 뜻을 가지며 그 기원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방하셔서 인간을 위로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심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목회자를 통해 주님께서 그 현장에 방문하시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심한 질병으로 인해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면회가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지만 우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역시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 분께 상황을 말씀드린 후 발열체크와 마스크는 물론, 비닐장갑과 모자, 옷까지 입고 권사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누워계신 권사님은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축축이 고이셨습니다. 반가움에 대한 최선의 표현이셨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이제 제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시면 제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작은 소리이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잠깐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마음의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하는 저와 기도를 받는 권사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얼마 후 권사님은 완치되어 퇴원 하셨습니다. 이미 기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100%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 믿음이 아닌 권사님의 믿음을 통해 주신 확신입니다. 열 두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을 통해 목회자들이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심방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심방을 받고 올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날도 권사님을 심방하는 자리에서 제 마음에 심방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광림남교회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



2021년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8월 21일(토) 마가복음 7장 34절을 중심으로 ‘어둠을 뚫고 오는 빛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찬양과 말씀, 기도 그리고 프로그램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를 계획하기 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 ‘청년들의 반응이

짜늘하면 어찌지?’ 등 한 달 넘는 시간을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9시 줌(Zoom)을 통하여 목사님과 임원들, 속장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이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

를 찾으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각자의 사정 때문에 초청이 쉽지 않았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광림남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함께 예배를 섬길 사람들도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주 전에 모든 인원이 채워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과 우리를 향해 끝없는 사랑과 공훈의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고, 또 모든 과정에 동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김현진 성도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청년속회



광림서교회는 지난 6월부터 청년 속회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속회예배 시간, 기쁨의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온타임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며, 개인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박소연 청년은 “속회예배는 대예배, 주중예배와는 또 다른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속회는 장년층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직접 드려보니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흥·성장해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청년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박영호 청년은 “속회라는 모임이 처음이었지만 찬양, 말씀, 기도와 나눔을 통해 큰 은

혜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속회 모임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적은 수의 모임이지만, 앞으로 부흥·성장하여 청년 속회예배가 차고 넘쳐 청년 부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림서교회 청년들과 세워질 청년부예배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아라 전도사 (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즐거운 여름성경학교, 하나님의 집!



광림북교회에서는 조금은 늦은 여름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교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신나게 울동하며 친구잔치에 들어가겠다며 찬양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

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미소가 저절로 그려 집니다. 성경필사와 매직성경, 퍼즐, 예수님의 숨은그림찾기 등으로 ‘예배자, 다윗’이 누린 축복이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정은 부장님은 “성경필사가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자로 사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 좋았고, 못 올 것 같았던 친구들이 나와 주어서 기뻐다”라고 했습니다. 한주영, 주하은 선생님은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친구들과의 찬양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고 하십니다.

“선생님, 우리는 아직도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계속 계속 찬양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 예배드리는 것이 선택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의 시간인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가장 신나는 날이 교회 오는 날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임을 알게 해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더위와 질병 앞에서 헌신 해주신 선생님들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영아 전도사 (광림북교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광림북교회〉

광림북교회는 광림교회의 지성전(Branch Church)으로 의정부 민락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킨 김선도 감독님의 영적 고향인 의정부 지역에 동서남북 지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김정석 담임목사의 비전의 완성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2018년 8월 9일, 성전건축을 완공하며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경기 북부 지역의 복음화와 통일한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

광림북교회가 세워진 곳은 '민락동(民樂洞)'입니다. 지명 자체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동네'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함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쁨과 즐거움 보다는 고난과 시련, 상실과 소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즐거움,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광림북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행 8:8)"는 말씀 그대로,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는 교회, 백성들의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목회철학과 5대 전통계승

L.I.G.H.T 세상의 빛이 되는 광림북교회

Loving '적극적 신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Investing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창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

Growing '성실한 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지는 공동체

Healing '사랑의 실천'으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Transforming '일치된 순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광림북교회는 매주일 드려지는 영감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되새기며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세상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광림교인들의 특징인 성숙한 인격과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며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민락 2지구와 고산지구의 젊은 가정들이 많이 정착하여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광림교회 본당 출신의 어르신 권사님들이 조화를 이루며 전세대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기도와 말씀,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친교와 중보기도(속회, 선교회)등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이며, 주일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광림교회 본당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 놀라운 축복이 광림북교회에도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황영재 목사(광림북교회)





김선도 감독의 아흔 인생과 ‘장천 울림’ 목회신학 이야기

13 레슬리 그리피스(현 영국 국회 상원의원, 영국 감리교회 전 총회장)



<목사 김선도 2 ‘목회의 지도를 그리다’>에서 현재 영국 국회 상원의원이며 영국 감리교 전 총회장인 레슬리 그리피스는 “내가 경험한 김선도의 글로벌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김선도 감독님은 겸손하게 행하는 리더십으로 놀라운 사역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했다. 김선도 감독님은 웨슬리의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실천적 경건’에 대한 깊은 열망을 품고, 실제로 광림교회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 활동으로 이를 실행하면서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고 했다. 김선도 감독님과 함께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여행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에게 마음을 나누는 ‘벗이며 스승’이라고 했다. 아래는 레슬리 그리피스 상원의원의 글 요약본이다.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

웨슬리 채플로 성지순례 온 김선도와 만나다
그 당시 나는 영국 런던 지역의 감리사로서 웨슬리 채플 안뜰에 있었다. 내 연구실에서 우연히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뜰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미 근무 시간이 끝났지만, 무엇인가 나를 그들이 서 있는 뜰로 이끌었다. 김 목사가 이끄는 성도들이었다. 성지를 방문한 후에 서울로 돌아가려는 중인데 김 목사가 “영국에서 웨슬리 채플은 꼭 방문해야 한다고 제안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기꺼이 열쇠를 찾아 구내 건물의 문을 열고 구내를 돌아보며 그들을 안내하자 모두 기뻐했다. 김 목사는 나의 호의에 감사해하시며 동료들에게 “주머니에 남아 있는 유럽 돈을 모두 찾아 보라”고 하자 그들이 가진 돈 전부를 꺼내 놓으며 기쁘게 헌금을 했고, 김 목사의 손은 건네지는 돈으로 가득 찼다. 그런 다음 반짝이는 눈으로 당신 손 위에 가득 찬 헌금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저희의 감사헌금입니다. 당신의 사역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를 드린 후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로 김 목사와 나의 마음에 우정의 씨앗이 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우정의 씨앗은 오래 지나지 않아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다.

우연한 인연이 다시 나를 김 목사에게 인도했다

당시 영국에서 신학 연구를 하던 백기도 청년과 당시 김 목사의 목회 비서였던 권순정 청년, 이 두 청년의 우정으로 김선도 목사와 나의 애정 어린 우정도 이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광림교회를 방문해서 교육, 선교, 영성 양성 등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와 대한민국의 전쟁 후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나는 김선도 목사의 가족들과 만났다. 사모님과 자녀들, 그들의 배우자들, 그리고 두 명의 손자를 만났다. 그 만남 후로 그의 손주 다니엘과 사무엘은 몇 년 동안 영국에서 공부하며 생활하게 되었고 친교를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세계가 인정한 김선도의 사역>

세계로 뻗어 나간 ‘섬김과 행함’의 리더십

훗날 나는 김 목사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다. 평양에서 시작하여, 한국 전쟁에서 ‘5분의 기적’을 겪은 후 의사가 되고 이후목회자가 되기까지 여정을 알게 되었다. 김 목사는 교회의 사명을 향한 헌신과 함께 밖으로 더 먼 곳으로 사역의 지평을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캔터키와 워싱턴DC에 세워진 건물들과 기관들에 김선도의 이름이 붙



여졌고 웨슬리 채플에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대리석 흉상 조각이 전시되어 있고, 광림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되었다. 그런데도 항상 다가가기 쉽고 낮은 모습으로 행함을 유지하는 겸손한 김 목사의 리더십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기에 그는 현재를 넘어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유산을 남길 것이며, 높은 곳에 올라선 리더의 차원을 넘어 대중 안으로 다가서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남길 것이다.

복음적 견해를 나누고 실천하는 벗이자 스승

우리의 만남은 마음의 만남이었고 영적인 동역자들의 만남이었다. 나는 김 목사와 함께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여행하면서 마음을 나누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웨슬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 읽기, 예배드리기,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행하는 웨슬리의 개인적 경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원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각자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교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함께 찾아가며 우리의 우정은 깊어갔다. 우리가 대화하면서, 김 목사는 웨슬리가 세상으로부터 무너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에 섬김으로 헌신하는 실천적 경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광림교회가 설교와 가르침 사역에 새로운 사회 및 공동체 봉사를 위한 센터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며 놀라웠다. 그 후 광림교회를 방문했을 때 나는 이 꿈이 현실화한 현실을 보면서 경외와 경탄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웨슬리 채플의 지하실에 감리교 박물관이 있는데 매우 지저분하고 낡은 상태였던 것을 김 목사는 아름답고 현대적인 감리교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다. 그 귀한 선물을 주신 김 목사와 광림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다.

세계는 나의 교구

김 목사가 웨슬리 채플의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였다. 웨슬리가 남긴 유명한 말씀처럼 김 목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생각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우정은 찰스 웨슬리가 남긴 글을 떠오르게 한다. “왜 당신은 우리를 제비 뽑아 결정했나요? 같은 시대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왜 함께 부르셔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게 하셨나요? 사랑의 동정, 증명으로 함께 하며, 왜 당신 안에서 우리의 친근한 영혼이 어울리게 하셨나요? [중략] 우리의 기쁨과 고통을 나누며, 모든 당신의 최고의 선하심까지 그리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새롭게 일으키셨네”

정리: 안미영 기자



2013년 광림교회 방문하여 설교하는 레슬리 그리피스 목사

